

다산포럼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두 주는 재난을 넘어 파국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의 천사가 날개를 펼친 시간이기도 했다. 법의 사회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훗날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 시기를 배우며 '엄마, 아빠는 그때 뭐 했어?' 라고 물을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재를 기억하라"고 말했다. 탄핵에 반대했던 정치인들의 SNS 계정에는 "당신의 행위는 역사에 박제될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역사의 기억은 단순한 의식과 기록의 차원을 넘어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기억이다. 이는 철학자 베르그손이 말하는 순수 기억으로, 역사의 지속 속에 남는 혁명의 기억과 같은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과거 계엄과 국가폭력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의 어머니는 박정희 사망 후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집이 폭발산났던 기억을 떠올렸고, 4·3사건의 기억을 가진 지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70년대 유신 독재와 80년대 서울의 봄에 맞서 싸웠던 장년층은 체포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와 트라우마는 과거의 직접 경험자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계엄의 공포를 미디어로 접한 청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학생들은 며칠 밤을 새우며 뉴스를 확인했고, 자취하는 학

역사의 천사와 함께 민주주의의 금(金)실을 잇자

생들은 서로 모여 상형실처럼 노트복을 끼고 정보를 나눴다. 계엄의 공포는 세대를 넘어선 공통의 경험이었다. 지난 이후 사회적 트라우마와 회복을 연구하며, 나는 회복력의 핵심 요인을 계속 찾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집합 기억, 인지적 유연성, 민첩성, 집합적 효능감 등이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나는 현재 인도네시아 아체를 연구 중이다. 아체는 장기적 내전과 2004년 진도 9.3, 30미터 높이의 쓰나미라는 충격적 재난으로 13만 명 이상이 사망한 지역이지만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쓰나미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지만, 100여 년 전의 기억이 전승된 섬에서는 '스몽'이라는 단어를 통해 쓰나미의 공포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그 섬만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쓰나미 이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절박하게 노력했다. 그 결과, 내전과 쓰나미의 충격 이후에도 아체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번 12월 3일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국민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유연하고 민첩하게 파악하기 위해 뉴스 속보에 집중했다. 정치에 무관심하던 여고생 딸은 모든 정치인과 군지휘관의 이름을 외우며 상황을 따라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가 계엄령을 운몽으로 막아냈다. 민주주의 사회의 상속자인 우리 군인들도 시민을 적대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불복종과 비적극적 태도를 보이며 임무를 수행했다. 민주주의의 기억과 가치가 체화된 정치인과 시민들은 민첩하게 대응했다. 계엄 가능성을 인지한 국정원과 군 출

신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는 빠르게 대비했고, 국회의장은 몸매 벤치의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통해 계엄 해제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아체의 공동체가 집합 기억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기억과 가치를 체화한 시민과 정치인들이 절박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각자의 역할을 다했기에 가능했다. 모두의 광장에서는 노래방 도우미도, 쿼어 시민도, 장애인도, 아리셀 유족도, 동자동 주민도, 노동자도, 농민도, 종교인도, 20·30대 여성도 나라가 어두울 때 자신이 가진 가장 밝은 걸, 귀한 걸 끼어 내어놓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혼신을 다했다. 그리고 탄핵의 순간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지드래곤의 '삐딱하게'가 울려 퍼졌을 때, 광장의 시민들,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던 이들은 우리 모두는 함께라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엄청난 효능감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과 그 일당은 11%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가짜뉴스와 선동을 통해 내전 상황을 이어가려 할 것이다. 2016년 촛불 이후 좌절된 사회 개혁과 광장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파국의 사이클이 고착되지 않고, 적폐와 싸우다 스스로 적폐의 귀신에 빙의된 빌런의 재등장을 어떻게 막을지 숙제를 해야 한다. 모두의 광장이 모두의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상상력도 필요하다. 일상으로 간신히 돌아온 오늘 정신없이 지나간 역사의 시간을 차분히 복기하며, 우리는 모두의 민주주의를 위해 폭력의 기억과 작별하지 않고 한강 작가가 말한 "심지에서 심지로, 심장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금(金)실"을 차근차근 잇기 위한 각자의 숙제를 찾아보면 어떨까?

NGO 칼럼



성지영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특화희생상담소) 소장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플랫폼의 확장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SNS(소셜 미디어), 메신저, 영상 공유 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여 사용자들이 많은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플랫폼을 악용해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쉽게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울대 N번방, 인하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대학 내에서 발생한 사례로, 디지털 성폭력과 불법 촬영물 유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학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인공지능기술(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조작해 실

현장에서 바라본 디지털 성범죄

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콘텐츠를 말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 게임, 가상현실 등에서 혁신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확산되어 청소년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리터러시 세대인 청소년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게임, 채팅 앱 등 디지털 도구를 통해 발생하는 온라인 그루밍은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하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성적 요구나 부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의 수법은 가해자들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악용하여 친밀감을 쌓은 후 성적 사진과 영상을 보내게 만들고,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유포 협박을 하며 더 많은 영상물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피해자들의 경우,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피해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제작한 경우에는 유인 등에 의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제작한 성적 이미지를 보낸 경우(27.0%)가 협박 등에 의해서 보낸 경우(11.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본 기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안정화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비동의 유포 촬영물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유포 URL에 대한 삭제 요청과 병원 진료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료비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동행하여 피해 조사 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고, 피해 사건 관련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며, 피해자가 당면해 있는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개인, 사회,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각 분야에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고

12월은 '침묵의 달, 무소유의 달'

는 순간 그것들은 헝겊이 부서져 버린다. 당신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확실하지 않고, 약속을 말하지만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 당신들의 현재는 더없이 불안해 보이고, 마치 집 잃은 코요테가 이리저리 헤매는 것과 같다. 그들은 외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내면을 응시하는 눈을 잃지 않았다. 한 해를 마감하는 달 12월을 '침묵하는 달' '무소유의 달'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어느새 12월도 중간을 넘어가고 있다. 산수(叢叢)를 눈앞에 둔 친구들과 산책하면서 나의 짧은 질문은 언제나 "친구, 인생은 아름다운가?"라는, 나도 정답을 모르는 질문을 잠깐 동안은 "이 앞에 펼쳐진 단풍이 아름답지 않은가?"는 모범 답안지가 없이 정답이다. 나의 주변의 문제들로 나의 번뇌만 복잡할 뿐 세상은 역시 아름답고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데 나의 절대고독만 번뇌로 복잡할 수도 있다. '무소유', 법정스님이 불필요한 것을 지니지 않은 것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라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 또한 나는 분명 통장의 숫자가 무겁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는 지극히 수준 낮은 사람이다. 이 역시 내 의지대로 되지를 않아서 격정한 속물근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2월, 침묵과 무소유의 계절에 우리 주변은 계엄의 소용돌이와 한강의 노벨상 축제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한강은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광주를 잔혹과 존엄이 공존하는 보통명사로 정의하였다. 우리의 현실은 또 그가 남긴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

름다운가? 라는 질문과 갑탄에 깊은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내 마음도 따라가 울려 놓는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품격 있는 세계로 바꾸어 놓았다. 다른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나의 경우이다. 눈이 어두워 책 읽기에 소홀했던 나를 시내 서점으로, 인터넷 책 구입으로 젊은 애들에게 책을 구하느라 분주한 생활도 하였다. 내 책상 위에 놓인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는 아름다운 언어로 고통을 묘사하고 책 내용이 현실화된 한국 상황이 기묘하다는 평이다. 그리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정독을 요구하는 시대적 발목 목회자가 되었다. 채식주의자는 이미 읽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읽어서 한강의 소설 구조를 파악하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고 '소년이 온다'는 페이지가 쉽게 넘어가지를 않는다. 출항 전이나 황순원의 소나기, 호손의 큰바위 얼굴을 가르쳤던 나의 의식구조는 한강의 군데군데 어느 곳의 소설구조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기에 조금은 많이 벅차다. 솔직히 한강의 소설에 대한 대화에서 나의 짧은 지식으로는 참여가 어려워 또 다시 침묵으로 대답하여야 할 것 같다. 나의 뇌리에 남아있는 소유는 이제 거의 소진되었다. 같이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다가온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외침, 스웨덴 밤을 빛낸 한강의 '생명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라는 메아리가 깊은 곳에 자라고 있다. 2024년 지독한 12월의 나의 '침묵'과 '무소유'는 더 깊게 심연으로 침잠하여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소유를 탐하는 속물근성을 없애야겠다. 밖에는 더 깊고 성숙한 침묵을 바라는 차가운 바람만 거세다.



박성구 전 광주일보 교사

국화꽃이 저버린 겨울 정원은 적막이 흐른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면 하얗게 무서리 내려 무더위 찬란했던 여름과 가을의 만산홍엽 잔치는 이제 추억으로만 남게 한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도 지나간다. 12월을 보내며 인디언들의 지혜를 따라가 본다. 인디언들은 약탈당한 땅과 자존심을 가슴 깊이 묻으면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한다. 인디언들은 12월을 '침묵의 달, 무소유의 달'이라 한다. 쓸쓸한 거리에 당구는 낙엽의 잔해를 밟으며 그것을 남긴 벌거벗은 나뭇을 바라보면 침묵하는 자연과 미련없이 버려진 지혜를 바라본다. 세상에선 무한한 것이 없고 인간의 잔혹한 욕심은 서로를 멸망의 세계로 달려가게 하는 계동장지 없는 기관차의 질주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디언들은 총과 병균 등을 가지고 들어온 백인들에게 비록 삶의 타전을 빼앗겼지만, 전통과 문화를 잃지 않으려 몸부림쳤다. 시대를 추장을 비롯하여 여러 부족들이 남긴 연설문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내가 보기에 당신들의 삶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신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들을 쫓듯이 부와 권력을 따라 뛰어다닌다. 그러나 손에 움켜잡

社說

국회 투입 계엄군 수 전투한 반란 때보다 7배

계엄을 통해 위기에 처한 국정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토록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완전히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비상 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 목적으로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은 계엄군 투입도 질서유지가 목적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숫자는 전투한 반란세력의 1980년 국회의사당 봉쇄 때보다 무려 7배나 많아 질서 유지용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국회의 주도권을 가진 야당을 위협해 국정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전투한 내란 재판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가 국회 봉쇄에 투입한 병력은 98명에 불과했다. 계엄군 소속 제33사단 101연대 1대대 3중대 장교 3명, 사병 95명은 엠(M)16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1980년 5월 18일 새벽 1시 45분 국회의

사당을 봉쇄했다. 경장갑차 8대와 전자 4대도 동원됐다. 그러나 이번 12·3 계엄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685명으로 1980년의 7배에 가깝다. 최근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197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수도방위사령부 211명 등 685명이 투입됐다. 여기에 출동중이거나 대기중이었던 국회의원 체포조인 방첩사령부 49명, 정보사령부 15명, 9공수 211명 등을 포함하면 동원된 계엄군 숫자는 1191명까지 늘어난다. 국회 주변 경찰력만도 12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장한 계엄군은 당시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에 진입했고, K151 소총전술차량 3대와 지휘 차량 등도 배치됐다. 이번 계엄 사태에 동원된 군과 경찰이 총 2300여 명에 달한 점에서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계엄군 동원의 성격은 명백하다.

국정협의체 참여로 '탄핵당' 불명예 씻어야

국민의힘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행동으로 공분을 샀다. 1차 표결 당시 집단으로 불참한 데 이어 2차 표결에선 108명의 의원 가운데 85명이나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도 열명 가운데 한명 꼴인 12명에 불과해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탄핵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며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만은 정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에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은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내란을 도모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집권 여당이 정권을 내주지 않겠다고 시간을 끈다면 차체에 당을 해체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심과 다른 국민의힘 지도부 행태에 벌써부터 탄당이 잇따르고 있다. 불모지인 광주에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 수백 명의 책임당원이 탄당 의사를 밝혔고 한때 1만 3000여 명이던 책임당원이 9000명 대로 급감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그제는 정부와 국회에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어제는 국정 전반이 부담스럽다면 시급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참여를 부탁했다. 이에 권선국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 공적인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당'이라는 불명예를 안지 않으려면 국정협의체 참여로 정국 수습 의지를 보여야 한다.

無等鼓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에 맞서 싸운다면 결국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경제학상(2008년)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분노의 시대에서 희망찾기'라는 제목의 고별 칼럼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카키스토크라시는 그리스어로 '나쁜·못된'을 뜻하는 형용사 '카코스'(kakos)의 최상급 '카키스토'(kakisto)와 지배·통치를 의미하는 접미사 '크라시'(cracy)의 합성어로, '최악의 사람들이 의한 정치'를 뜻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 상황을 '카키스토크라시'로 규정할 게 크루그먼 교수의 시각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2024년의 단어'로 '카키스토크라시'를 꼽았다.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644년 영국에서다.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왕을 지지하는 목사가 반란 세력에 향해 "건실한 군주제가 미친 카키스토를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380년 전 단어가 현대 정치에서 재조명되는 건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부인 방탄에 골몰하다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도 사과하는 커녕 궤변으로 일관했다가 탄핵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비겁한 침묵으로 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 국회 출입을 막고 군화발로 짓밟고 '위헌·위법인 줄 몰랐다. 시켜서 했다'는 경찰·군인 지휘관들, 국민 뜻을 외면하고 탄핵 투표를 거부한 의원들.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들로 우리 일상이 위협받았지 않나. 이들을 선정한 실수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김명훈은 자신의 책 '카키스토크라시'에서 '지금 저항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주제를 다루며 '공공 문제에 대해 선한 사람들이 무관심하면 그 대가로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만드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자.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for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